

 보건복지부	보 도 참 고 자 료			
배 포 일	2020. 5. 12. / (총 3매)			
중앙사고수습본부 임시검사시설지원팀	팀 장	주 철	전 화	044-202-3731
	담 당 자	정 재 민		044-202-3833
공공의료과	과 장	노 정 훈		044-202-2530
	담 당 자	이 영 근		044-202-2531

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, ‘경기 소재 임시생활시설’ 및 ‘인천의료원’ 현장 방문 (5.12)

- 임시생활시설 및 인천의료원 업무 점검, 의료진 및 행정인력 격려 -

□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(보건복지부 차관)은 5월 12일(화) 오후 2시 ‘경기 소재 임시생활시설’과 ‘인천의료원’을 방문하여 시설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의료진 등 근무자들을 격려하였다.

□ 임시생활시설은 코로나19 증상이 없는 해외입국자가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대기하거나 단기 체류* 외국인이 14일간 격리하기 위해 마련된 숙박 시설이다.

* 사증면제(B-1), 관광통과(B-2), 단기방문(C-3), 단기취업(C-4) 비자를 받은 외국인 (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른 단기체류자격)

○ 경기도에 임시생활시설 2개소를 새로 운영 중이며, 보건복지부 등 6개 정부기관과 관할 지방자치단체, 국민건강보험공단, 국민연금공단 등 총 156명이 정부 합동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 중이다.

- 2개 시설에는 각각 최대 700명, 450명의 외국인들이 입소가 가능하며, 5월 12일 기준으로 각 시설에 373명이 각각 숙박하고 있다.

- 그동안 공공기관 연수원 등 위주로 운영되었으나 최근 ‘생활 속 거리 두기’로 전환(5.6일)하면서 공공 시설은 본래 목적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반환하고, 그 대신 숙박 여건, 교통 편의 등이 우수한 민간 호텔 위주로 임시생활시설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업계의 불황 극복도 도모할 수 있는 ‘새로운 민관 감염병 재난 대응 모형’을 시도하고 있다.
- 김강립 1총괄조정관은 현장을 살펴본 후 의료진 등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면서 “인천공항 검역소와 함께 해외 입국으로 인한 감염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만전을 기해 달라.”라고 당부하고, 입소자들의 식사, 건강 관리, 직원들의 업무 현황 등을 점검하였다.
- 이어서 김강립 1총괄조정관은 감염병전담병원 중 인천광역시 동구에 소재한 인천의료원도 방문하여 환자 치료 시설 등을 점검하고 의료진 및 관계 기관 직원 등을 격려하였다.
- 인천의료원은 지난 2월 20일부터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99명의 환자를 치료해 온 인천 지역의 대표적인 공공 병원이다.
- 이 자리에서 김강립 1총괄조정관은 “인천의료원이 감염병 전담 병원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의료진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이 밤낮으로 애써 주셔서 감사하다.”라고 격려하고 아울러 “국제생활치료센터와 함께 해외 입국 확진자 치료에도 큰 역할을 해주어 고맙게 생각한다.”라고 하였다.
- 또한 “정부는 감염병전담병원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지방의료원 등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 방안을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대한 신속하게 마련할 것”이라고 전했다.

- 끝으로 정부는 △의료기관이 코로나19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재정 부담을 덜고, 코로나19 치료에 참여할 경우 적절한 보상을 하도록 건강보험 선지급 및 조기지급을 하고 있으며, △선별진료소, 감염병 전담병원, 의료인력 및 방역 물품 등 코로나19 치료에 필수적인 비용은 예비비 등을 통해 신속히 지원하였다고 밝혔다.